

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3. 6. 14(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서비스산업유치과
담당	과장 안도현, 담당 박애령(032-453-7404)

인천경제청 벨기에 겐트대 마린유겐트 해양 연구소 유치 양해각서 체결

세계 최대 해양 융복합 연구소로 내년 중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개소 목표
글로벌 공동 해양 연구개발 등 통해 '블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구심점 역할 기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벨기에 겐트대학교 부설 해양 연구소인 '마린유겐트(Marine@Ugent)'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진용 청장과 콜린 얀센(Colin Janssen) 마린유겐트 연구소장을 대신해 한태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장이 참석했다.
- 가칭 '마린유겐트 코리아'가 설립되면 글로벌 공동 해양 연구개발(R&D) 추진,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환경 및 에너지-식품관련 최첨단 기술 사업화, 글로벌 연구인재 유입 및 양성 등을 통해 '해양 도시 인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인천경제청은 연구소 유치를 위해 장기간 협의해 왔으며 사업 계획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세계 최대 해양 융복합연구소인 마린유겐트는 해양·환경·바이오 융복합 연구 및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됐으며 교수 및 연구진 규모만 500여명 이상이다. 벨기에 겐트대학교를 비롯 오스텐드시에 위치한 오스텐드 사이언스 파크(Ostend Science Park) 등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 마린유겐트 연구소장인 콜린 얀센 교수는 해양환경, 생태독성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해 영국 컨설팅 기관 클래리베이트(Clarivate)의 논문 피인용지수 세계 상위 1%에 이름을 올렸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제 기구의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콜린 얀센 연구 소장은, “해양 융복합 연구 수행에 있어 한국, 특히 인천은 최적의 리빙랩(Living Lab)이다. 한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서해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 인천에 분원이 설립된다면 마린유겐트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한국의 해양과학기술과 해양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 한태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장은 “겐트대학교는 해양 바이오, 해양 환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 설립이 잘 추진된다면, 글로벌 해양 분야 연구 앵커 기관으로서 글로벌 산학협력 및 '블루바이오 클러스터'(해양 바이오 신산업 단지) 조성과 대한민국의 해양최강국 진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김진용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연구소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구소 측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린유겐트 연구소를 통한 K-해양 첨단 산

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겐트대학교는 1817년 벨기에 겐트시에 설립된 유럽 명문 종합대학으로
순수과학 및 응용과학, 인문사회과학 등 각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세계 대학 학술 랭킹(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기준 종합 70위권으로 생명공학, 농·생명과학
분야는 세계 10~20위권 내외로 랭크돼 있다.
- 우리나라에는 송도국제도시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를 두고 분자생
명공학과, 식품공학과, 환경과학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실험 중심의 엄
청난 학업량과 91.6%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